

保 기관에 의뢰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機會에 本人이 참석하여 검토하였던 바 1971年 以前 서울에 建設된 高層 Office 및 Hotel 을 防火對策上 개수지시를 받지 않은 建物이 없었다. 심지어는 1970年代에 建設된 조선 Hotel도 개수가 불가피한 實情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비상탈출 및 Smoke Tower가 없고 Traffic Area가 모두 open system으로 된 때문이다.

이러한 高層建物이 一定期間中 火災對策에 걸려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점ियो. 따라서 國家的으로 行政處理가 어려워 질수밖에 없다. 이러한 建物들은 國內에 생존해 있는 作家에 의하여 이룬 建築일데는 더욱 그 展望된 점에서 실망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建築計劃에서 防火對策이라면 우리들의 建築은 理論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게될 建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을 그때 보아왔다.

그리고 행정 또한 서로 각각이여 이견이 분분하다. 이래서야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都市에서 火災對策이 제대로 될것인가 걱정스럽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경우에서 보면 인적 Fire Code가 만들어 지지 않았기에 모든 建築計劃에서 쫓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썽 앞으로 火災對策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나라와 같이 Fire Code를 빨리 마련하여 이것을 建設部나 소방본부나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서 같은 行政施行으로 시민이 보호되도록 하면 하는 생각이 들뿐이다.

大韓建築學會誌 25 권 99 호 81年 4月 p 60

---

〈防災 NEWS〉

### — 情報 管理 教育 —

협회에서는 방재 시험소 설립과 병행,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재 자료의 정리와 최신 과학 기술 정보의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정보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센터(KORSTIC)에서 실시하는 「과학 기술 정보 관리」 및 「과학 기술 정보 관리 실무」교육에 「정경 1부 권오승」 대리와 「방재 연구부 최수민」 대리의 위탁 교육을 의뢰하여 '81년 4월 및 5월에 각 5일 간 정보관리에 필수적인 제 과정을 이수토록 한 바 있다.